

## ‘마아’에 대하여

金完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처용가(處容歌)의 한 단락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처용의 비범한 모습을 갖가지로 묘사한 데 이어지는 사설이다.

누고 지서세니오 누고 지서세니오  
바늘도 실도 어찌 바늘도 실도 어찌  
處容아비를 누고 지서세니오  
마아만 마아만 흐니여  
十二諸國이 모다 지서세온  
아으 處容아비를 마아만 마아만 흐니여

위에 권점을 쳐서 표시한 부분, 즉 ‘마아만 마아만흐니여’는 두 번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이 불분명한 가운데 몇 갈래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양주동 선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여요전주』, 177면. 원문대로 옮기되, 표기는 현대의 것으로 하고 한자는 많이 줄였다. 다른 분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마아만 마아만 이대로의 말은 문헌에 소견이 없다. 그러나 생각컨  
 덴 ‘마아만 마아만하니여’는 간단히 ‘만하니여’ (다수인을 과장적으로  
 언표키 위하여 마치 ‘두둥실·둥두렛’과 같이) 첩운적으로 멋지게 노  
 래한 것이다. 즉 ‘만하’ 위에 첨가된 ‘마아’는 그 첩운 접두사로 볼 것  
 이다.

남광우 선생의 『고어사전』은 ‘양주동 설’이라는 단서를 붙여 이 견해를 신  
 고 있는 반면, 유창돈 선생의 『이조어사전』은 채택을 유보하고 장차를 위한  
 공백만을 두고 있다.

김형규 선생이나 박병채 선생이(그의 제자들이 손질한 고친판 포함) 양  
 선생의 견해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요전주』와 같은  
 1947년에 간행된 지현영 선생의 『향가여요신석』에는 취향이 다른 해석이 보  
 인다.(94 및 96면)

[주석 부분]

마아만 … … 偉大한, 신성한 어마한, 존엄한.

[통석 부분]

어마하고 위대 존엄한 處容아비여!

어마하고 위엄스러운 處容아비여!

『국역악학궤범』은 가사의 번역에도 신경을 많이 쓴 좋은 책인데, 번역 본  
 문 부분은 비워 두고 난하에 이렇게 적고 있다. (Ⅱ. 33면)

일설에 의하면 “맑고도 맑은 사람이여”의 뜻이라 하나 미상하다. “슬기  
 로운(처음 지어낸) 슬기로운 이여”의 뜻으로 여겨진다.

최철 교수의 『고려국어가요의 해석』은 문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피며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이여’라고 하면서도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167면)

‘마아만 마아만’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맑고도 맑은 사람’ 또는 ‘처음 지어낸 슬기로운 이여’라고 풀기도 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맑은 사람’이란 해석을 했을 때에는 박병채 고친판이 연역했듯이 ‘맑고 맑은 사람들이여’(168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착이겠다. 혹 앞에 ‘여러 가지 재주가’ 같은 말이 생략되었다면 ‘처용’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에 ‘어마어마한, 훌륭한, 슬기로운 계열의 해석에서는 그 수식어를 처용에 걸리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처용을 처음 만든 사람에 걸리는 것으로 하기도 한다. (지현영과 이혜구 『?국역악학궤범』의 차이)

## 2.

위에서 본 해석의 여러 결과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문면의 형태 분석이 적절했는가를 살펴야겠다. ‘마아만 마아만하니여’는 ‘가시리 가시리잇고’와 같은 점층법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마아’가 접두사로 앞에 붙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런 설명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말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적고 있는 것 같기만 하다. 한편, ‘어마어마한’ 계열의 해석은 ‘마아만 마아만하니여’가 어딘지 모르게 현대어의 ‘어마어마한’에 흡사한 데에서 온 착상이겠으나, 형태론적 고려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많다’ 설에 뒤진다.

그러나 처용신의 모습에 대한 칭송이 절정에 오르는 대목에서 ‘...하니여’가 처용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현영 선생식의 접근이 처용상을 지어 세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하는 쪽보다는 문맥에 근접해 있었다고 평할 수

도 있겠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양주동 선생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문헌에 일체 소견이 없는’ 이 문면은 침착한 접근을 요구한다. ‘설’을 앞세우지 말고, 또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고 관찰하는 것이 첫 단계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가 미지의 부분인가를 분간하고 아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모르는 부분에 도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마아만 마아만흐니어’에서 머리 부분은 수상하지만, 꼬리 부분은 평범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니’에 들어 있는 ‘이’는 인물이고 거기에 붙은 ‘여’를 모를 사람은 없다. 그 앞의 ‘…만흔’은 명사에 접속하여 비교를 의미하는 말이다. ‘코끼리만한’, ‘조자룡만한’, ‘이것만한’과 같은 말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잘라내면 남는 것은 ‘마아’ 뿐인데,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방정식에서의 미지수 X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 X에 대하여 당장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명사라는 것뿐이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찾아보아도 ‘마아’ 또는 그 비슷한 모습의 명사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마아’가 숨이 끊긴 사어로서 다른 문적에서 일체 흔적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사태는 절망에 가깝다. 문맥을 통하여 어떠한 범위 안의 명사일까를 추측해 보는 것이 고작 일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문헌의 전승 과정에서 어떤 원인으로 어형이 이지러져 오늘의 ‘마아’를 보이게 된 것을 생각하는 경우다. 구두 전승에서의 와전, 또는 문자 전승에서의 오자설(誤字說)을 말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면서도 또 거부할 수 없는 필요악(必要惡)이라 할 수 있다. 성공하면 갈채가 기다리지만,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은 것이다. 오자의 정정과 전주설(轉注說)은 청조(淸朝)의 고증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도구이지만, 그들에게 대교할만한 풍부한 자료들이 있었던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문헌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상 속의 자료를 뒤져야 하는 암담함이 있다.

## 3.

필자는 일단 ‘마아’를 명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처용의 비교 대상이 되는, 어쩌면, 그보다 윗길의 존재, 그리고 그 음상이 ‘마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명사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다.

가장 쉽게 연상되는 것이 불교 용어들이어서 그것들부터 찾아보았다. (처용가가 불교적 색채의 노래인가 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면서) maha, magha, maghā, māgha, makla, … 등.

그러나 maha는 ‘大’, magha는 ‘보시’, maghā는 ‘七星’, māgha는 ‘사자 별자리’이고, makla가 ‘고래, 바다의 괴물’로 의미는 그럴듯하나 음상이 너무 멀어 ‘마아’의 후보될 것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다가 이것이면 혹 모르겠다 하는 것을 한자어에서 하나 얻었는데, 그것이 ‘麻胡’(마호)이다. 이 말은 현대의 중국어에도 살아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máhu 곰보에 수염투성이 얼굴,  
 = máhǔz [麻虎子, 馬虎子] 도깨비, 귀신,  
 = máhu [麻糊] 멍청한.

중국의 옛 기록에서는 ‘麻胡’에 세 가지 다른 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회계록(會稽錄)에 전하는 것으로 회계 땅에 麻胡라는 귀신이 있어 어린이의 뇌를 즐겨 먹었기에 어린이를 겁주기에 이르렀는데, 麻胡라면 어른도 두려워할 존재이지 어찌 어린이가 뿐이겠는가 하고 있다. 둘째는 후조(後趙) 석능장(石勒將) 麻胡가 성격이 험하고 독하여, 어린이가 울 때마다 ‘麻胡가 온다’ 하면 울음소리가 그쳤다 한다. 셋째는 수나라 양제(楊帝) 휘하의 장군 麻胡의 일로서, 양제가 강도(江都)에 가려고 麻胡에게 명하여 변하(汴河)를 열도록 시켰는데, 목아(木

鶯)로써 물깊이를 시험하다가 병사를 다 죽게 하였다. 어린이가 울 때마다 '麻胡가 온다' 하면 그쳤으니,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이와 같았다는 것이다.

이 셋째 설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제의 장군 이름은 麻祜(음은 같은 마호)이지 麻胡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인물에 대하여는 얼굴에 녹자 [黑鹿=검은 자국]가 있었다고 한다)

이상은 일본의 모로하시(諸橋徹次)의 사전에 보이는 것을 추려 쓴 것이 거니와 『通俗編』(통속편) [狀貌, 麻胡]조 말미에는 이런 말이 있다.

按컨대, 수설이 각각 달라 어느 것이 옳은지 정하기 어려우나 지금은 단지 형상이 추박(醜駁)함으로써 불분명한 것을 보면 麻胡라 한다. …

이런 정도의 위인 또는 귀신이면 처용가의 처용에 견줄만한 존재가 되기에 족하겠거니와 우리나라의 기록에 반영된 것으로는 『광재물보』(廣才物譜)의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할 수 있다. (鄭良婉 등,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158면)

麻胡將軍(마호장군) 麻胡者, 石勒將軍 麻秋胡也. 性虎險, 有兒啼輒恐之曰, 麻胡來云. 卽止之. 今俗所稱 야오광 卽麻胡將軍之訛也(廣, 人道部一小兒)

이 '야오광'이라는 단어는 국어연구원의 사전에도 아직 오르지 못한 것인데, 이것이 『광재물보』의 저자의 말대로 과연 '麻胡'로부터의 전와인가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밤에 우는 어린이를 말하는 '夜哭郎'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런 혼란을 낳을만큼 麻胡가 우리나라에서도 친숙한 존재였음을 증명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 4.

여기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馬胡→마아’의 계보를 그려보기로 한다. 첫째는 가창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것을 생각하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황아장수’ 같은 말에서 보는 ‘황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노걸대언해』에서는 ‘황호’라고 적히며 한자로는 ‘荒貨’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의 ‘황아’의 ‘아’가 ‘호’로부터의 발달인지 ‘화’(貨)로부터의 발달인지에 대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가창자들의 입에서의 와전을 가상해 보면서도 그쪽에는 비중을 덜 둔다.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기록으로 전승되어 온 자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가요의 가사는 『악학궤범』이나 『악장가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으로 보존되는 것이며, 아마도 가사만을 적은 가사책도 존재했을 것이다. 『고려사』 악지 등에서 ‘사리부재’(詞俚不載)라 하여 불행히도 국문 부분을 삭제하여 볼 수 없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국문가사도 기록으로 존재하였음을 말하여 준다. 한글 창제 이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차차표기로 기록되었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데, 필사본 형태로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는 의도적인 변개와는 별도로 읽고 쓰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전와(轉訛)가 생기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문 가사에 있어서는 의도적 비의도적 변개의 자취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의 ‘麻胡’도 당초에는 제대로 쓰였던 것이 중간에 아마도 亂書(난서)와 오독의 결과로 ‘胡’가 ‘阿’로 변하는 수난을 겪었을 것을 상정한다. 한자 글씨라는 것은 초서화의 정도와 개인차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胡’와 ‘阿’는 정자체에서의 선명한 구별과는 달리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중간 단계의 ‘麻阿’를 보고 그것을 한글화시킬 때, 그것이 『악학궤범』에서의 일인지 그전에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더 이상 한자어로 인식할 수는 없어 ‘마아’로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아만 마아만하니여’의 문면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추리인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표기하게 된 당사자가 ‘마아’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마아’가 麻胡의 뜻이라는 것을 짐작했더라면 아마도 도로 ‘麻胡’에의 복귀가 행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일,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마아’에 대한 필자의 추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또한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마아’를 명사로 보기까지의 형태 분석의 공과 새 길을 여는 데 공헌한 것에 대한 자부심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